



2026년 6월 21일(제1305호) 연중 제12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새로운 길 앞에서 쉽게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 처음 맡는 일을 시작할 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패할까 걱정되고,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저 역시 군종신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깥 본당과는 전혀 다른 환경,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치고 상처받은 장병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 없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 그 자체를 없애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느님의 돌보심 밖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 두셨다고 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걱정과 마음속 깊은 불안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자신을 부족하게만 바라보곤 합니다. 실수했던 기억, 비교당했던 순간,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보다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십니다.

신앙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는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강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 생활 안에서도 공동체를 지탱하는 사람들은 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지친 전우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복음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계경준(사도요한) 신부  
동해(해군 제1함대시령부)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예레 20,10-13
- 회    답    송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제 2 독 시      로마 5,12-15
- 복음    읽    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 복            음      마태 10,26-33
- 영    성    제    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상화이야기

저주받은 이들의 추락



디에릭 보우즈(Dieric Bouts, c. 1420-1475)  
1470년경 제작, 115 × 69.5cm  
릴(Lille) 시립미술관, 프랑스

이 작품은 1468년 벨기에 루뱅(Louvain) 시청을 위해 의뢰된 <최후의 심판> 세 폭 제단화(트립티크)의 맨 오른쪽 패널이다. 현재 중앙 패널은 소실되었으나 그 모습은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Alte Pinakothek)에 소장된 모사본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세로로 길쭉한 이 패널은 제목의 ‘추락’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수직적 운동감이 지배적이다.

상단의 어슴푸레한 하늘에서부터 벌거벗은 인간(영혼)들의 무리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며, 험준한 바위 절벽과 깊은 심연을 따라 아래로 내려쫓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 학자는 이들(죄인들이) “화산 지대의 풍경 속에서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지옥으로 가라앉고 있다.”라고 적었다.

하단에는 검붉은 불길과 음울한 연기가 타오르는 지옥이 펼쳐지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음산한 색조가 절망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추락하는 저주받은 영혼들은 모두 알몸인데, 이는 하느님 앞에서 숨거나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는 인간 존재의 상태를 드러낸다. 또한 영혼들의 팔다리는 제멋대로 뒤틀리고 서로 뒤엉켜 혼란스러운 군상을 이룬다.

이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고, 비명을 지르거나 헛되이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몸짓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다. 이 절망적인 추락의 한가운데에는 날개 달린 악마들과 기괴한 형상의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떨어지는 영혼들을 붙잡아 끌어내리거나 발톱과 손아귀로 움켜쥐어 지옥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으며 가차 없이 괴롭히고 있다. 형체를 일그러뜨린 듯한 이 악마들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은 죄에 대한 형벌의 잔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람자에게도 도덕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종교적 교훈의 장치로 기능한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협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2주일: 솔지 장성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6월 21일(주일) 10:3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간담회  
 때·곳: 6월 27일(토), 군중교구청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